

최종보고서

2015.03.04~2015.08.04

Saath Saath Team
IN MUMBAI
Azad, Sachin, Deepa, Tara

목차

1. 팀 소개
2. 활동 소개
3. 활동 영상
4. 개인 소감

1. Saath Saath 팀 소개



Azad(아자드)

이름 : 자유
별명 : 모따, 버라문디
역할 : 회계->현지소통->
사진->사무국 소통

이름 : 순수
별명 : 사친텐두까, 미따
역할 : 현지소통->사진->
사무국 소통->회계



Sachin(사친)



Deepa(디파)

이름 : 빛, 램프
별명 : 초띠, 디피카빠두콘
역할 : 회계->현지소통->
사진->사무국 소통

이름 : 별
별명 : 못생겼어, 기린
역할 : 사무국소통->회계-
>현지소통->사진



Tara(따라)

2. 활동소개



1. 까마티푸라 D.C.C & Balwadi

활동내용

공부 보조, 소풍, 전래 동화 연극, 식
물 심기, 미술 활동, 편지쓰기
내부환경개선(의자문제, 식수 문제)

피드백

Balwadi

- 갑작스러운 활동 종료 (캠프)
- 영아들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 예산 사용에 대한 인지 부족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DCC

- 외부환경개선 시도 X
-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2. 활동소개



2. 힌디 클래스

활동내용

소통을 위한 힌디 공부
(기본적 단어, 문법, 회화)
힌디 or 영어 챗트 공부

피드백

- 캠프, 휴가, 350 캠페인 준비 등으로 많이 빠지게 되어 아쉬움.
- 어린 아이들이나 도비가트 지역 처럼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됨.
-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낌.

2. 활동소개



3. 도비가트 센터

활동내용

교육 활동 (영어, 직업, 등)
문화 교류 (한복 체험, 한국 소개)
미술 활동 (종이 접기, 물감 놀이,
그림 그리기, 가면, 옷 만들기 등),
한국 음식 파티(집 방문),
응급 상자 배치, 상처치료 등

피드백

- 정규교육의 대체 혹은 보완이라는 목적
비교적 성공적
-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류의 아쉬움
 - 통제, 소통의 어려움
- 유일하게 지역 공동체 속에 속해있음
 - 주변과의 교류 多
- 생리대 문제 시도 X 아쉬움



2. 활동소개

4.싸탁 플레이 스쿨

활동내용

몸 놀이 (한국 게임 등)
영어 챗트 부르기 등

피드백

- 절대적 시간의 부족
- 우리의 적응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
- 적절하지 못한 스케줄 배치
- 소통의 어려움



2. 활동소개



5. 닐시캠프/데이캠프

활동내용

350 캠페인 세션 진행
(PPT발표, 재활용노트 만들기, O,X 퀴즈)
한국 게임 진행 (몸으로 말해요, 일심 동체, 신문지 게임 등)
캠프 활동 참여 (발런티어)

피드백

- 다른 활동들의 중단 문제
- 350 캠페인이라는 목적에 대한 의문
- 너무 많은 횟수
- YMCA youth volunteer들과의 만남 : 다음 활동을 함께 함.
- 인도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던 기회



2. 활동소개



6.보이즈홈

활동내용

등교 함께하기,
한국문화교류(한국 음식 만들기),
체육 활동 (런닝맨, 단체 줄넘기 등),
무비 나이트,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쓰기 활동 등

피드백

- 일상을 함께 함.
- 프로그램을 진행 할 여건 X
- 비협조적인 관계자
- 팀원 외에 함께 생활하는 현지친구
- 관계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움.



2. 활동소개

7. 주후 센터



활동내용

재활용 패트병을 이용한 식물심기,
한국 게임, 한국 음식 만들기,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쓰기,
공부 보조, 등교 함께 하기 등



피드백

- 관계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움
- 성과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음.
- 다른 발런티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2. 활동소개



8. CFES /Unemployment Youth

활동내용

프로젝트 및 지역 배경 OT,
반드라 지역 슬럼가 방문,
지역 NGO방문

피드백

CFES

프로그램 종결 단계 -참여 여건 X

Unemployment Youth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음,
시간 상 문제 (스케줄상),
중단하는 것이 옳았음,
But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프로
그램은 이것 뿐이라 종단의 아쉬움
(활동 종료 후)

2. 활동소개



9. 홈스테이

활동내용

2박 3일 홈스테이,
슬럼가 방문, 빌리지 방문,
문화 교류 등

피드백

- 가족이 생긴 행복함!
- 돌아올 곳이 생겼다는 것!
- 엄마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생겨 좋음!
- ♡ ♡ ♡



2. 활동소개



10.350PPM CAMPAIGN

활동내용

포다르 콜리지 세션 발표/이퀄 스트리트 건기 캠페인 (식물 심기, 페이스 페인팅, 재활용 노트 만들기, 사진 전 부스) /디와이 파티 콜리지 캠페인 (페이스 페인팅, 재활용 노트 만들기, 포토존, 손도장 찍기 부스)/ 캠프 내 350 ppt 발표, 재활용 노트 만들기 활동/ 브로셔 나눠주기 (YMCA기념 행사 중)/ 각 사이트별 식물심기 활동/ 350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350 관련 스티커 제작 및 배포

피드백

- 350 실천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
- 봄베이 ymca의 요구가 현지의 요구가 맞는 가라는 의문
- 성과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움,
- 현지의 만족도가 높음
- 후속 캠페인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점에서 의의
- 다른 발런티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
- 체력적으로 피곤
- 영어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부담감
- 리퍼런스의 부족



2. 활동소개

10. 휴가 & 뭍바이 속 삶



2. 활동소개

그 외 우리가 했던 고민들

- 삼오공 피피엠 캠페인 관련해서, 핸드폰도 쓰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까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가.
- 어디까지 팀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독자적 행동의 범위는?)
- 이곳의 현장의 문제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장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구성된 지식과 경험)
- 어디까지를 문화의 차이라고 인정해야하고, 어디까지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ex. 체벌문제)
- 이전 기수 모두가 노력을 기울인 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 (ex. 까마티푸라 외부환경)
- 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것이 빠르고 더 쌀 때?
- 현지가 원하는 것이란? YMCA인가 현지인인가?
- 캠프, 다른 활동들을 제쳐두고 갈만한 것인가?
- 현지 아이들이 호감을 보여 온다면?
- 공금과 사비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라운아띠 어디까지, 가능한가? (술, 클럽, 여행)
-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받는 것은 괜찮은지? (받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기수가 없으면?)
- 과연 한국음식 중 무난하게 다들 좋아할만한 음식은 무엇인가?
- 라운아띠로서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만한 활동이 무엇인가? 팀 내 정체성을 관계로 잡으면 놀기만 하고 가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 YMCA의 내부 관계자와 갈등이 있었던 팀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 라운아띠가 하는 일의 양,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활동 영상 감상

개인 소감 발표

Thank You